

# 한국개화사 연구의 다양한 '길트기'

「開化派와 開化思想 研究」 펴낸 李光麟교수



이광린교수

한국개화사 연구의 독보적 업적을 일컫은 李光麟교수(65·세종대)가 최근 개화사연구로만 자신의 다섯번째 저서가 되는 「開化派와 開化思想 研究」(일조각)를 출간했다.

1986년에 펴낸 「韓國開化史의 諸問題」 이후 발표했던 관련논문 16편을 한데 묶은 이 책은, 특히 근30년에 이르는 李교수의 개화사연구의 길잡이를 다시금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여느 논문집들의 범상함을 뛰어넘는 귀중한 성과로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李교수 스스로는 “하나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혹은 깊이 천착하기보다 개화사에서 의당 다루어야 될 문제들을 살피는 데 그쳤다”고 말하지만, 그 ‘의당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 李교수에 의해 비로소 다루어졌다는 데 이 책의 각별한 의의가 있다는 것.

“제 작업은 말하자면, 개화사연구에 관련된 계속적인 문제제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테마에 대한 집중적 탐구로 어떤 완결된 단행본의 꼴을 갖추기보다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였습니다.”

## 실증적 자료분석과 사실확인 돋보여

그런 점에서 「韓國開化史研究」(1969), 「開化黨研究」(1973), 「韓國開化思想研究」(1979), 「한국개화사의 체문제」, 그리고 이번의 「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로 이어지는 李교수의 일련의 작업은 한국개화사의 처녀림을 개간하는 쟁기요 보습이며, 또한 후학들을 위한 다양한 '길트기'가 된다. 이미 밝혀진 사실을 이리저리 엮어서 꿰맞춘 '집대성'보다는, 밝혀지지 않은 것의 끊임없는 '발견'과 문제제기를 李교수는 제몫으로 갖고 싶어 한다.

## 30여년간에 이르는 李교수의

### 한국개화사 연구는

### 방대한 자료섭렵과 치밀한 사실확인

### 굳건한 토대 위에서 있다는 데

### 그 일차적인 미덕이 있다.

### 아울러, 개화사연구에 관련된

###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 우리 개화사의 가리워진 구석구석을

### 새롭게 드러낸다는 점도 높히 평가된다.

「개화파와 개화사상 연구」에서도 그것은 발견과 문제제기는 잘 드러난다. 예컨대, 「개화당의 大院君觀」은 흔히 개화파와는 상극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대원군에 대한 개화당의 이율배반적 평가를 밝히고 있어 흥미롭다. 그런가 하면 「구한말 關西지방 유학자의 사상적 轉回」는 영남유림에 비해 西化유림의 애국 계몽운동이 왜 상대적으로 신속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파헤쳐 좋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그밖에도 개화기 한국인에 의해 제기된 '아시아連帶論'을 비롯, 尹致昊·兪吉濬 등 인물연구, 培材학당과 평양大成학당 등 교육기관 연구에 이르기까지 李교수는 우리 개화사의 구석구석에 날카로운 문제제기의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한편으로, 李교수가 진행해온 한국개화사연구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그것이 굳건한 실증적 토대 위에서 있다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자료의 뒷받침 없는 역사연구는 픽션이 되기 쉽다”고 강조하는 그는 “자료로 하여금 이야기시키다”는 랑케의 말에 가장 철저한 역사학자이다. 역사는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있었던 그대로’이며, 따라서 자료검증이 무엇보다도 우선된다는 것이 그의 학자적 소신이다.

“다행히 개화사 부분의 자료는 비교적 풍부합니다. 조선조 말기에 이르면서 왕조실록의 기사가 다소 ‘맥이 빠지는’ 대신, 국내의 의 각종 문건과 특히 신문 등 저널리즘 자료를 폭넓게 동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개인적으로도, 한동안 연구교수로 가 있던 미국 하버드대의 연칭도서관 소장자료를 비롯해서 일본 東京大의 ‘明治신문잡지문고’ 등의 자료를 두루 살필 수 있는 행운을 갖기도 했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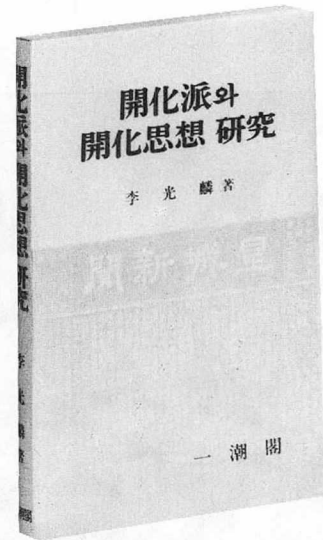
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는 미국 미시건대의 벤트리역사도서관에서 1890년대 후반 한국주재 미국공사를 지낸 썰(sill)의 서한을, 그리고 메사추세츠의 피바디박물관에서 유길준의 영문서한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이 책에 실린 「미시건대학에 있는 썰공사의 서한」과 「유길준의 영문서한」이 각각의 검증 결과이다. 또, 1986년에는 일본의 八丈島를 답사, 그곳이 일본망명중이던 유길준이 일본정부에 의해 3년간 유배됐던 곳을 확인하는 등 李교수의 한국개화사연구는 방대한 자료섭렵과 철저한 사실확인에 그 든든한 기반을 두고 있다.

## 개화기는 한국사의 가장 큰 과도기

한국개화사연구에 李교수가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의 일로, 당시의 우리 사회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조선의 ‘水理史’ 연구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조선은 농업사회였고 농업의 중심은 쌀농사, 물농사이며 따라서 물을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조선사 이해의 한 방편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4·19와 5·16의 격변을 겪으면서 개화사연구쪽으로 그의 학문의 방향타가 자연스레 수정된다.

“모든 역사는 다 과도기라고 하지만, 개화기야말로 한국사의 가장 큰 과도기였습니다. 전통의 해체와 근대의 대두가 동시에 진행되는 혼란의 와중에서 보수와 개혁의 갈등이 첨예화하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 역사의 가장 의미있는 분기점이지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E.H.카의 말대로라면, 개화기는 현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과거입니다. 학문적 측면에서 볼 때도 비교적 다양한 접근과 분석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李교수에 의하면 한국의 개화기는 시기적으로 대략 1860년대에서 1910년까지의 50년간. 이를 다시 독립협회가 창설된 1896년을 기점으로 전·후기로 나누는데, 몇몇 선각자들 중심의 개화전기에 비해 개화후기는 획기적인 대중화의 방향으로 개화운동이 확산된 시기로 파악한다. 물론, 개화운동의 이같은 확산은 한일합방으로 결국 좌절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개화사가 반드시 실패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것이 李교수의 지론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60년대만 해도 개화기를 지칭하는 말로 통용됐던 ‘舊韓末’이란 표현에 일종의 거부감



을 느끼고 있다. 어딘지 落照의 뉴앙스가 그 말 속에 포함돼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개혁의 방법론을 둘러싼 사상적 갈래들을 통합하지 못한 채 합방의 비운을 맞고 말았지만, 격변의 당대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려 했던 나름대로의 노력들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李교수가 한국개화사를 조감하는 시야의 기본틀이다.

## “한국개화사는 실패의 역사 아니다”

25년간 봉직했던 서강대를 떠나 올봄부터 세종대에 출강하고 있는 李교수에게 학문은 곧 그의 생활 전체이다.

젊었을 적부터의 오랜 습관대로 요즘도 아침 6시면 일어나 서재에 가 앉는 일에 어김이 없으며, 가끔씩 어울리는 저녁 술자리에선 “9시만 되면 도망가버리곤 해 서강대에서 유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흔히 갖게 마련인 편벽된 꼬장꼬장함을 내비치지 않는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서교동 자택의 서재 한켠에 탁본으로 내건 秋史의 글씨처럼 막힘없이 활달하다. 그런 이광린교수의 오늘의 우리현실에 대한 진단 또한, 그의 말투에 아직도 남아있는 西北사투리의 억양처럼 거침이 없다.

“너무들 성급해요. 어떤 주장들은 지나치게 앞서 있어 과연 우리 당대의 구체적 현실에 발을 담그고 몸을 적시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반대중과 유리된 급진적 개혁운동이 어떤 귀결을 가져오는지는 이미 우리 개화사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강철주 기자